

# 객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

#TIL/dev/fundamental

## 경험

1. 마음일기 수정작업을 하면서 로직이 굉장히 복잡해졌고, 그로 인해 기능 추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. 그 원인을 야기한 것은 `useSelectedKeyword` 였다. 도환과 PP를 하면서 이 Hooks의 책임을 더 적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영감을 얻었고 바로 코드로 적용해보았는데 과연 로직이 엄청나게 깔끔해졌고 작업속도도 탁월하게 개선할 수 있었다.
2. 객체뿐만이 아니라, 객체 구현 안에서의 기능도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. 예전에 iOS에서 알람설정할 때 각 alarm request의 id를 push title로 둔적이 있었는데, 갑자기 다른 사람에 의해 push title이 모두 동일하게 바뀌면서 알람설정한 것이 overwrite되는 이슈가 있었다. push resource를 id로 쓰면서 이런 참교육이 발생한것.. 조심해야지..

## 적용

→ 각 객체를 만들때, 해당 객체의 책임영역을 먼저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.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단순한 파일분리가 아닌, 객체별로 명확하게 책임을 나누되, 그 책임영역을 최소화하면서 가져가는게 다양한 기능 변경에도 튼튼한 코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다.